

# “2030 잡아라”...이재명·윤석열, 가상자산 공약 표심 공략

### 이, 가상화폐 공개 허용 검토 윤,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9일 나란히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을 내놓았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두나무 사옥을 찾아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가상자산업의 제도화를 핵심으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가상자산의 법제화를 통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열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고 불공정 거래는 감시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등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는 “눈을 가린다고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피할 수 없다면 앞서가야 한다”며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가상화폐 공개(ICO)의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검토했다. 특히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인 증권형 토큰의 발행 허용도 검토하겠다고 하며, 이를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거론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높은 관심을 ‘경제대통령’ 행보와 연관시켜 윤 후보와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저는 지난해 11월 11일

‘가상자산 1년 유예’를 약속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지 않은 12월 2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며 “제가 드리는 약속에 ‘나중에’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후보도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가상화폐는 국민 자산 형성의 중요한 포트폴리오로 작용한다”며 “특히 청년들이 디지털자산이라는 새로운 자산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청년들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가상자산으로 번 수익 중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며 현재 250만원인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5000만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코인과 대체불가토큰(NFT) 등 가상자산산업 정책을 주도할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코인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부당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은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고, 해킹과 시스템 오류에 대비한 보험 제도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다만 전반적인 규제·정책은 명시적으로 금지하



가상자산 플랫폼 가입하는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압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 앞서 가상자산 플랫폼(빗썸)에 가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용 외에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도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국내 가상화폐 ICO를 허용하되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

(IEO) 방식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尹, ‘이대남’ 올인...다음 키워드는 6070·호남

### 호남 200만가구에 윤 폰트 손편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설연휴를 앞두고 핵심 지지층인 6070 세대와 여전히 불모지로 남은 호남을 동시 공략한다. 선대위 개편 이후로 ‘이대남’(20대 남성)의 지지세를 끌어내는 데 주력했다면, 표심의 분수령을 짚히는 설연휴를 맞아 표심 공략을 다변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9일 “최근 선거운동이 젊은 남성에게 너무 치우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부 제기되지만 그렇지 않다”며 “6070이나 호남에 대한 전략도 탄탄히 세워두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AI(인공지능) 윤석열’을 이용해 50만명이 넘는 책임당원 전원에게 1대1 명절 인사를 보내는 방안을 ‘6070 맞춤형 전략’으로 검토하고 있

다.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는 형식으로 개인화된 영상을 제작해 한꺼번에 배포하는 방안이다. 미리 만들어둔 ‘AI 이준석’을 함께 가동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후보본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6070세대가 책임당원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며 “윤 후보가 1대1 메시지를 보내면 어르신들의 호응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호남 구애의 전략으로는, 윤 후보의 손편지를 대규모 우편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선 예비후보로서 전체 유권자의 10%인 약 200만 명에게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는데, 모두 호남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호남의 전체 세대 수가 마침 200만 가구 정도 된다”며 “전국의 다른 지역에는 손편지를 보내지 않고 오직 호남에만 보내지

지를 호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손편지 인쇄에 앞서 ‘윤석열 폰트’도 따로 제작했다. AI 시스템이 기계 학습할 수 있도록 윤 후보가 수십 페이지의 손글씨를 작성해 입력, 컴퓨터로 편지를 작성하면 실제 손편지와 똑같이 구현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윤 후보는 급격히 설연휴 전 호남을 방문할 예정으로, 손편지 역시 방면에 앞서 대대적으로 배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연휴 직후 ‘윤석열차’라는 이름으로 무궁화호 열차 4량을 빌려 호남 지역을 순행하면서 시민들과 만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선대본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윤 후보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격차가 벌어지면 단일화 얘기도 찾아볼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 安, 이준석 비판에 “초조하고 내가 무섭다는 뜻”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9일 연일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향해 “이 대표의 발언은 ‘안철수가 무섭다. 내가 초조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인들은 아무런 신경을 쓸 게 없으

면 아예 언급하지 않는다. 위협이 될 때만 발언을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가 종편 방송에서 가면을 쓰고 익명 패널로 나와 자신에 대한 비난성 발언을 한 데 대해 “한당의 당 대표가 상대방에 가장 위협적인 당 대표를 그렇게 폄하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옳지 않

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단일화와 관련해 “조건이나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면서 “안철수로의 단일화라면 그 단일화는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자 TV토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공정 토론, 독과점 토론, 비호감 토론”이라며 “거대 양당의 패악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연합뉴스

## 2월1일부터 시장·지사, 시도교육감 예비후보등록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 시장·전남지사, 시도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등을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개별·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19일 안내했다. 다수의 선거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집합 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코로나 감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입후보안내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고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가 예비후보자 등록에 불편함이 없도록 ‘선거사무안내(1~4편)’ 영상을 유튜브 사이트 및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입후보예정자에게 선거사무안

내 책자 배부와 유선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는 2월 1일부터 ▲도의원(지역구), 시의원(지역구) 및 시장 선거는 2월 18일부터 ▲군의원(지역구) 및 군수 선거는 3월 20일부터,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일인 5월 11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등록할 수 있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지역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추진

### 민주혁신위, 3차 혁신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가 지역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비례대표 위성정당 금지법 등을 추진한다. 혁신위는 19일 이런 내용의 제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우선 지역구 국회의원이 청렴의 의무를 담은 헌법 46조를 위반할 경우 총 유권자 15% 이상의 동의로 소환하는 국민소환제를 추진키로

하고 관련법 제정을 당에 건의했다.

혁신위 구상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 국민소환은 투표권자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이 찬성하면 된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6개월 이내, 잔여 임기 1년 이내의 경우는 소환 기간에서 제외하고, 임기 중 동일 사유로 재소환하는 것은 금지하는 구상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h1>경매교육 [특수전문반]</h1> <p>기초반, 중급반</p>		<h2>상가매매(상무지구)</h2> <p>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 시세 -&gt; 9억 급매가 -&gt; 5억8천 (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층,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h2>신축원룸매매(신축)</h2> <p>1개동 원룸 (상가)로 노후대비결(공실없음) ● 월수익 750만 ● 년수익 9000만 ● 매가 13억5천 (보2천, 용 6억5) ★ 4개동(월수익 3000만) =&gt; 년수익 3억6천 매가 56억(보8천, 용25억)</p>
<p>1) 특수경매전문반 모집(선착순 8명) (유치권 전문, 법지)</p> <p>2) 직업 전문반모집(배우면서 돈버실분 환영) ● 기초반, ● 중급반, ● 특수반 (기초부터 ~ 실전 ~ 특수까지)</p>	<p>광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gt; 최저가 1억7천 (1/21)</li> <li>서구 쌍촌동(아파트) ▶ 감정가 1억7천 -&gt; 최저가 1억1천 (1/27)</li> <li>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95억 -&gt; 최저가 66억 (2/3)</li> <li>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gt; 최저가 2억9천 (2/3)</li> <li>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8억1천 -&gt; 최저가 5억6천 (2/3)</li> <li>서구 화정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2천 -&gt; 최저가 2억2천 (2/3)</li> </ul>	<p>전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양시 성황동(임야) ▶ 감정가 18억 -&gt; 최저가 5억1천 (1/10)</li> <li>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gt; 최저가 14억 (1/10)</li> <li>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 32억 -&gt; 최저가 22억 (1/10)</li> <li>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9억7천 -&gt; 최저가 3억5천 (1/20)</li> <li>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gt; 최저가 6천1백 (1/27)</li> <li>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gt; 최저가 2억9천 (2/3)</li> </ul>	<p>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남 창원시 의창구(근린상가) ▶ 감정가 40억 -&gt; 13억 (1/13)</li> <li>서울 특별시 영등포구(근린시설) ▶ 감정가 64억 -&gt; 최저가 32억 (1/25)</li> </ul>
<h1>010-6670-9800</h1>			